

<봉헌과 감사의 기도>

(목사) 주 우리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회중) 우리가 감사와 찬양을 드리는 것이 마땅합니다.

(목사) 오! 주 우리 하나님, 하나님은 참으로 크십니다. 위엄과 광채로 옷 입으시고 빛으로 싸여 계십니다. 고요한 산 위에서 십자가에 직면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계시하셨습니다. 이처럼 우리 구속의 신비를 섬광처럼 나타내시니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시므로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셔서 우리와 함께 거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 그대로이신 예수, 모든 피조물의 만아들,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으신 바 된 예수께서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려고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죽음을 당하셨습니다. 그는 죽으심으로 죽음을 이기셨고, 다시 살아나심으로 영원한 생명을 주셨습니다. 구원하시는 은혜를 주셨으니 주님을 찬양합니다.

(회중) 성령으로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우리의 모든 언행에서 주님의 사랑을 비추게 하셔서 온 세상이 찬란한 하나님의 광채, 곧 모든 피조물의 인도자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하소서 아멘.

(모두 자리에 앉습니다.)

성찬식

파송

<산상변모주일 성만찬>

<교회소식>

<파송의 찬양> : 하나님의 부르심 (일어서서)

- (1)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네
- (2)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을 나는 알 수 없지만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길을 가리라 때론 내가 연약해져도 주님 날 도우시니 주의 놀라운 그 계획을 나는 믿으며 살리
- (후렴)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심 믿네

<위탁의 말씀> (요일3:23)

(목사)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가지고 주님의 이름으로 나아가시오. 예수 그리스도께 충성을 다하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축복> (빌4:7)

(목사) 모든 지각에 뛰어내신 하나님의 평강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의 지식과 사랑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전능하신 하나님, 곧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축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항상 함께할지어다.

(회중) 아멘!

<후주> (후주가 연주되는 동안 예배와 말씀을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 다음주일설교 :“발가벗겨진 사랑, 수치심을 댄다” / 창3:7-10; 히12:1-2; 막15:16-20 >

✠ 교회소식 ✠

㉠ 예배

성령의 임재를 구하는 예배

형식이 아닌, 성령님의 만지심과 운행하심을 갈망하며 예배함시다. 우리의 심령이 성령으로 뜨거워질 때, 참된 예배의 회복이 시작됩니다.

- 예전예배학 제2강 : 15일(오늘) 오전 10시 10분, 기도실
- 설 연휴로 새벽예배(16-18일), 수요일예배(18일)는 휴회합니다.
- 설 가정예배 순서지 : 필경대 위에 비치

㉡ 공동의회 : 22일(주) 2부 예배 후, 본당

㉢ 향존직 피택자교육 : 15일(오늘) 오후 1시, 회의실

㉣ 창립 117주년 기관별 찬양발표회 : 3월 1일(주) 오후 3시, 본당 - 22일(주)까지 신청서 작성(사무실 비치)

㉤ 모임

- 한길 여전도회 월례회 : 15일(오늘) 2부 예배 후, 영아유치부실
- 한빛 여전도회 월례회 : 15일(오늘) 2부 예배 후, 기도실
- 한샘 여전도회 월례회 : 15일(오늘) 2부 예배 후, 본당 찬양대석
- 한누리 남선교회 월례회 : 15일(오늘) 2부 예배 후, 남선교회실
- 한길성경공부모임 : 19일(목) 오전 10시 30분, 회의실

㉥ 2026년 안동장학생 선발

- 대상 : 청년부(대학생)
- 제출서류 : 지원서(사무실 비치)
- 신청기간 : 2월 15일(오늘)까지

㉦ 2부 찬양대원 모집 : 매주 성실하게 찬양 연습과 봉사가 가능한 분 (75세 이하) - 신청서 : 사무실 비치(문의 : 민동욱 집사)

㉧ 2026년 엘림아카데미 개강 : 3월 4일(수) 오전 10시 30분, 본당 "실버체조" (이창순 강사) - 수강 신청 및 접수 : 22일(주), 3월 1일(주), 로비

㉨ 청년부 수련회 : 21일(토)~22일(주) 양평 푸른정원펜션, '내게로 와서 쉬어라'

㉩ 식당봉사

- 15일(주) : 박선숙 장금녀 / 이호진 정찬욱
- 22일(주) : 고명수 김정단 함영림 / 이준호 황종환

㉪

수요성서특강 : “제2성전기” (신구약 전체를 관통하는 성서 특강)

- 일시 : 3월 4일·11일·18일·4월 8일, 수요일 오후 7시 (총4회)
- 강사 : 김근주 목사
- 대상 : 교회학교 교사 및 모든 성도 (*저녁식사 제공)

1 부



2026년도 주제 : 사회적 책임을 감당하는 교회 창조세계 보전의 해

침묵할 수 없는 기쁨: 굶주린 자들의 발견

열왕기하 7:3-9

우리는 흔히 전도를 '해야만 하는 무거운 숙제'나 '상대방에게 부담을 주는 일'로 오해합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전도는 의무감(Duty)이 아니라, 너무나 좋은 소식을 접했을 때 터져 나오는 자연스러운 탄성(Delight)입니다. 아람군대 진영에서 풍성한 음식을 발견한 문둥병자들은 굶어 죽어가는 성안의 사람들을 생각하며 "우리가 침묵하는 것은 죄"라고 고백했습니다. D.T. 나일즈의 말처럼, 전도는 "빵을 찾은 거지가 다른 거지들에게 빵이 어디 있는지 알려주는 것"일 뿐입니다. 내가 만난 예수님이 내 인생의 가장 기쁜 소식이라면, 우리는 침묵할 수 없습니다. "와서 보라(Come and see)"라는 가벼운 초대로, 사랑하는 이들을 생명의 잔치로 부르는 기쁨을 회복하십시오.

소그룹 나눔 질문

- [인식의 전환] 당신에게 전도는 '부담스러운 숙제'입니까, 아니면 '맛집을 소개하는 것' 같은 즐거움'입니까? 내가 가장 최근에 누군가에게 열정적으로 추천했던 것(영화, 음식, 제품 등)과 비교하여, 복음을 전할 때의 내 마음 온도는 어떠한지 솔직하게 나눠봅시다.
- [적용과 실천] 내 주변에 영적으로 굶주려 있는 '성안의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그들에게 논쟁이나 설득이 아닌, 나의 변화된 삶과 표정으로 "와서 보라"고 가볍게 초대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기회는 언제일까요?



산상변모주일예배

1부 예배 : 오전 9시

인도 : 황영태 목사

개회예전

<인사>

(목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회중) 목사님과도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목사) 우리 다함께 일어서서 하나님께 예배드립니다.

<정울림> 말 은 이

<성경의 선언> (요일 3:2)

(목사)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 것은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내심이 되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 아는 것은 그의 계신 그대로 볼 것을 인함이라

<개회송> (오르간)

<오늘의 기도>

(목사) 하나님, 성자의 변화 가운데서 주께서는 모세와 엘리야의 증언으로 신앙의 신비를 확증하셨습니다. 그리고 구름 가운데서 들려온 목소리로써 우리를 주님의 자녀로 삼으실 것을 예표하셨습니다. 그리스도와 더불어 우리를 하나님의 영광의 후사로 삼으시고 그 완성의 기쁨을 누리게 하소서. 이제와 영원토록 성부와 성령과 함께 한 하나님으로 살아 계시고 다스리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회중) 아멘.

찬 송 43장 다 같 이

<죄의 고백과 용서>

(1) 고백으로의 초청(히4:14-16)

(목사) 우리 주님 예수께서는 우리의 연약함을 친히 아시는 분이심을 기억하십시오. 그는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으셨으나 죄는 없으신 분이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갑시다. 하나님과 이웃에 대한 우리의 죄를 다같이 조용히 고백하십시오.

(잠시 묵상기도)

(2) 죄의 고백

(다같이) 자비로우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광의 빛을 계시하시나 우리는 각기 제 뜻을 따르다 그 길에서 벗어납니다. 우리가 들어야 할 때에 말하고, 기다려야 할 때에 행동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목적 없는 열광을 용서하소서. 하나님의 빛에 살며 하나님의 사랑하는 성자, 곧 우리 주님이시며 구세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따를 수 있는 지혜를 주소서.

(3) 사죄의 선언

(목사) 복된 소식을 들으십시오.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도다. 그가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성도 여러분에게 선언합니다. 여러분은 용서함을 받았습니다.

(회중) 아멘.

<평화의 인사>

(목사)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용서하셨으니, 우리도 서로를 용서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평화가 성도 여러분 모두와 함께 하기를 축원합니다.

(회중) 목사님과도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서로 평화의 인사를 나눕니다.

“주님의 평화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찬 송 1장 만복의 근원 하나님 다 같 이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찬송 후, 자리에 앉습니다.)

말씀예전

<조명하심을 구하는 기도>

(목사) 은혜의 하나님, 우리는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존재임을 고백합니다. 우리로 이 하늘의 양식을 갈망하게 하시사,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참된 양식이 되며, 영생으로 이끄는 양식이 되게 하소서. 하늘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회중) 아멘.

찬 송 497장 다 같 이

<구약의 말씀> 열왕기하 7:3-9(572) 이다미 집사
(낭독하기 전에) 성령께서 교회에게 주시는 말씀을 들으십시오.
(낭독한 후에) (봉독자) 주님이 주시는 말씀입니다.
(회 중)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신약의 말씀> 요한이서 1:1-4(394) 이다미 집사
(낭독한 후에) (봉독자) 주님이 주시는 말씀입니다.
(회 중)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말씀묵상> “우리가 어려움에 처해있을 때” 김 진 성도 오르간

<복음서 말씀> 요한복음 1:38-39(143) 정영란 권사
(낭독한 후에) (봉독자) 주님이 주시는 말씀입니다.
(회 중)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잠시침묵)

< 설 교 > 『침묵할 수 없는 기쁨: 굶주린 자들의 발견』 · 황영태 목사

<설교 후 응답> (계5:12)

(목사) 죽임을 당하신 어린양이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회중) 아멘.

<믿음의 확증: 신앙고백(사도신경)>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 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회중의 기도> 정영란 권사
찬 송 505장 다 같 이
(마지막 절은 일어서서)